

국립세종수목원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활동 본격화

- 대전·세종·충청권 청소년 대상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 본격 시작 -
- 생물다양성 조사 결과 연구·정책 기초자료 활용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지난 5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발대식을 열고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참가자 150명을 비롯해 인솔자, 관계자, 주요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시숲의 역할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 시민과학자 준전문가와 함께하는 생물탐사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사업은 복권위원회,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 청소년 1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10월까지 식물·곤충·조류 분야 전문가와 함께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와 생태교육에 참여한다. 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생태 데이터는 전문가 검증 거쳐 생물 연구와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강신구 원장은 “청소년들이 도시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생태계 보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시민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다양성본부 도시숲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남춘희 (044-251-0281)
		담당자	주 임	류경인 (044-251-0290)

<사진설명>

지난 5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청소년 참가자 150명을 비롯해 인솔자, 관계자, 주요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사진설명>

‘2026 청소년 도시숲 시민과학자’ 청소년 참가자들이 조류, 식물 분야 전문가와 함께 도시숲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고 있다.

